朴炳權 · 金禮東 著 '남극과학' 청소년 권장도서에 선정

박병권 소장과 극지지질과학연구실장 김예동박사 공저인 '남극과학'이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가 선정한 여름방학 동안 청소년들에게 권할만한 책으로 뽑혔다.

남극연구를 시작하는 과학도나 청소년들에게 남극과학을 소개하기위해 발간된 이 책은 제1부 남극탐험과 과학의 역사(신대륙 탐험, 20세기초 남극탐험, 남극과학 시대의 도래, 남극의 과학과 국제정치), 제2부 남극권의 생물상(생물분포 및 생태, 생태학적 적응, 남극의 먹이망, 남극어장의 개발), 제3부 남극의 얼음과 암석(해빙과 빙산, 빙하와 기후기록, 얼음의 역학과 대양, 곤드와나 대륙), 제4부 남극의 대기와 우주연구(혹독한 기후, 남극의 현재 기후, 남극에서의 우주연구, 남극의 독특한 환경) 등으로 꾸며져 있다(서울컴퓨터프레스 발행, 245쪽, 정가 9,500원)

남극과학기지 제6차 월동대 선발

1992년 12월부터 '93년 12월까지 남극세종과학기지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하게 될 월동대원 12명이 관련기관의 추천과 공개 모집에 의해 최종 선발되었다.

대원중 대기과학과 통신 및 의사는 관련기관의 추천에 의한 심사로, 시설운영직은 공개모집하였는데 응시자 68명중 서류전형, 면접, 신체검사를 거쳐 최종 7명이 합격되었다.

6차 월동대원은 다음과 같다.

김 동 엽 (대 장)
배 세 진 (연구원)
남 영 만 (대기과학 : 기상청)
안 승 용 (통신 : 체신부)
우 병 국 (중장비, 정비)
조준행·김홍수 (발전, 전기)
장성현·정석봉 (기계, 설비)
백 영 식 (조 리)
김 찬 (의사 : 보사부)
주 용 (연구기사)

韓國 南極科學委員會 정기회의 개최

한국남극과학위원회(KONCAR) '92정기회의가 10월 26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무역센터 다이아몬드홀에서 박병권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위원회는 박병권 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개정회칙 검토, '91/'92 남극과학연구단 활동보고, '92/'93 남극과학연구단 운영계획(안), 남극관련 대외활동보고 등으로 진행되었다.

김예동 간사는 활동보고를 통해 이 기간동안 '남극환경 및 자원탐사 기술' 연구를 국가주도 첨단요소과제로 수행(1차년도), 하계연구단은 킹죠지섬 주변 육상 및 브랜스필드 해협, 젤라쉬해협, 브라반트섬, 애드미럴티만 등 해양조사를 기상청, 서울대 등 정부 및 학·연 관련 9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수행하였으며 남극세종기지에서의 고층대기 연구는 미국 뉴욕주립대학과 공동연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KONCAR 위원은 다음과 같다.

박 병 권 (위원장)
김 봉 균 (학술원 정회원)

이 병 돈 (동의대학교 총장)
봉 종 헌 (기상연구소 소장)
김 동 학 (한국자원연구소 소장)
심 영 섭 (환경처 수질보전국장)
이 원 (동자부 자원개발국장)
정 창 세 (수산청 생산국장)
최 홍 식 (과기처 생물해양연구조정관)
황 진 하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박 주 석 (국립수산진흥원 해양자원부장)
유 광 일 (한양대 생물학과 교수)
이 서 항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허 형 택 (한국해양연구소 연구위원)
송원오, 장순근, 김동엽
(한국해양연구소 책임연구원)
김 예 동 (한국해양연구소 선임연구원, 간사)

장순근박사 著 '하얀지평선' 이달의 청소년 도서로 선정

극지지질과학연구실 장순근 박사의 저서 '하얀지평선'이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선정한 이달의 청소년 도서에 뽑혔다.

문학·사회·순수과학 등 5개 분야에서 18종을 뽑은 '92년도 1차분의 선정에서 순수과학분야의 권장도서에 포함된 이 책은 장순근 박사가 대한민국 남극연구단 제1차 및 제4차 월동대장을 역임하면서 체험한 남극의 자연환경과 남극연구내용을 소개한 것으로 청소년들에게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구심을 일깨워 주었다.

(수문출판사 발행, 405p, 정가 7,800원)

제 6 차 남극과학연구단 하계연구대 – 칠레 연구원 2명도 참여, 온누리호로 조사 –

극지지질과학연구실장 김예동 박사를 대장으로 하는 제6차 남극하계연구단이 '92년 12월 16일부터 단계적으로 출국하였다. 하계연구단에는 한국자원연구소, 서울대, 인하대등 국내 관련학계·연구소의 24명 이외에 칠레연구원 2명도 참여하였으며 '92년 12월 24일부터 '93년 2월 28일까지 남극반도 주변해역과 세종기지 일대의 해양과 육상의 지질 및 지구물리, 원양해양, 천해저생태 등을 조사 연구하게 된다. 원양조사에는 한국 최초의 종합해양조사선인 1,400톤급의 온누리호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영국의 주관으로 실시되는 남극환경보호를 위한 국제기지 검열단에 극지연구센터부장 장순근 박사가 한국대표로 참여하여 남극의 각국기지를 검열할 예정이다. 하계연구단의 주요 연구내용과 일정 및 대원은 다음과 같다.

1. 지질과학조사

(1) 해양지구물리학적 조사

- 남극반도 주변해역 및 스코티아해의 신생대 제3기 지질 발달사의 규명을 위해 측선거리 2,000Km에 걸쳐 탄성파·중력·다중채널 수심계 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수행.
- 연구참여자 : 김예동, 문재운, 남상헌, 강천윤, 김기영, 유해수, 박건태, 장남도.
- 항해조사기간 : 1993년 1월 17일~1월 31일

(2) 육상지질조사

- 새로이 발견된 식물화석을 정밀 연구하고 고환경의 규명을 위해 기지부근 육상지질을 계속조사.
- 연구참여자 : 전희영(한국자원연구소), 이종익.

2. 생명과학조사

(1) 원양해양조사

- 남극해양생태계의 역할과 기능을 파악하고 해양환경의 보호 및 자원 이용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브랜스필드해협에서 웨델해 일부해역에 걸쳐 일반해양학 및 생물학적 조사를 수행.
- 연구참여자 : 강영철, 석문식, 이상훈, 함석현, 정창수, 배세진(6차 월동대), 강천윤, 노재훈(인하대학교), 이수형, 칠레 연구원 2명.
- 항해조사기간 : 1993년 2월 2일~2월 13일

(2) 기지 부근의 천해저 생태 조사

- 해양생물자원의 이용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잠수에 의한 표본 채집 및 실험 분석.
- 연구참여자 : 안인영, 정호성, 오윤식(서울대학교), 박정기(한국잠수연맹).
- 연구기간 : 1992년 12월 24일~1993년 2월 28일

기지 소식

'92	1 / 1	신년하례식 및 상견례 실시.
	1 / 4	인공위성 철탑 설치.
	1/25~27	쓰레기 및 폐기물 선적작업. 계속되는 작업에 피로를 느낌.
	1/27	작업이 오후 6시경에 완료. 저녁식사후 전대원 모인 가운데 5차 하계대 송별식.
	2 / 7	우루과이기지 대장외 6명 방문.
	2/13	아침식사전 부두앞에 크릴이 해안가에 몰려와서 떼죽음한것 목격.
	2/17	세종기지 4주년 기념일. 칠레기지 대장이 축하선물 보내옴.
	2/18	우루과이, 러시아기지 대장 및 러시아 극지연구 부소장이 기지 친선 방문.
	3 / 3	오전중 최대풍속 25m/s로 야외작업 및 조사활동 중단.
	3/30	대원들 정기신체검사.
	4 / 7	오전 7시 30분경에 올들어 최대풍속 39.1 m/s 기록.
	4/27	온실을 보수하여 화단 제작.
	5/20	디젤 저장탱크 밸브가 동결되어 기지내 기름공급 중단. 절수·절전 시작.
	5/25	밸브 해빙작업을 밤새 실시.
	5/31	폭설풍(최대풍속 37 m/s)으로 정비동 문짝 날아감.
	6 / 4	정비동 문짝 파손 수리.
	6/14	휴일, 스키타기 행사.
	7 / 5	휴일 새벽 2시, 불시에 소방훈련실시.
	7/13	오전 11시 30분경 올들어 최저기온(영하 23.6도 - 기지설립이래 두번째의 최저기온), 최고기압(1024mb - 기지설립이래 세번째).
	7/23	아르헨티나 대원 2명이 멕스웰만을 걸어서 우리기지에 도착하여 1박.
	7/28	우리대원 2명이 멕스웰만 걸어서 칠레기지 도착.
	8/10	저녁에 김수암 기지대장이 SBS방송, MBC방송과 위성통신발사와 관련한 전화 인터뷰.